

조선후기 관음삼존상 협시에 나타나는 위태천 관련 도상 분석*

김민지**

- I. 머리말
- II. 관음삼존상에 나타나는 위태천 도상 요소
- III. 관음삼존상에 미친 『불정심다라니경』
권수 변상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영향
- IV. 관음삼존상에 호법신중 도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그 의미
- V. 맺음말

I. 머리말

觀音三尊像은 조선후기에 조성된 觀音菩薩을 중심으로 좌우 脇侍가 있는 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총 8점이 전해지고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인 1655년에 법주사 원통보전에 奉安된 목조관음보살좌상과 협시상,¹ 1670년에 제작된 운흥사 목조수월관음불감, 17세기 것으로

* 본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인 「조선 17-18세기 관음삼존상 연구」를 정리하여 보완한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¹ 법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좌우에는 동자상과 용왕상이 협시로 있다. 그러나 협시상이 후보일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어 좀 더 세밀한 연구로 검증이 필요하며, 관음보살상의 후면에 배치된 〈수월관음도〉와 불단

추정되는 남해 보리암 목조관음보살불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목조관음보살불감, 서울 안양암 관음보살상, 1701년 조성된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협시상, 1719년 조성된 안성 칠장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과 협시상, 석조로 제작된 금릉 덕천리 석조관음보살입상²이 있다.

불교조각사에서 관음삼존상은 지금까지 연구가 미미한 도상이었으며, 최근에는 관음보살의 협시상을 海上龍王과 南巡童子로 파악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³ 기존 연구에서 관음보살의 협시를 해상용왕과 남순동자로 다룬 이유는 고려 수월관음도에 동자와 함께 간혹 용왕이 표현되는 예와 흥천사에서 1890년 제작된 〈신중도〉에 ‘南巡童子 海上龍王 改彩’라고 협시상의 지칭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나타나는 점과 그리고 1935년에 간행된 『釋門儀範』의 관음전 내용에서 관음보살의 협시로 해상용왕과 남순동자를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조각으로 조성된 관음삼존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도상 요소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용왕이나 동자로만 생각되었던 협시상들에서 투구의 새 날개 장식, 수평으로 든 봉형의 지물, 武裝形 복식 등의 특징이 보이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용왕이나 동자의 도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韋馱天의 도상적 요소들이다.

이 상들은 17세기에서 18세기 초에 집중적으로 조성되는데, 복장물에서는 협시의 존명이 기록된 예가 없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19세기 흥천사 〈신중도〉의 畫記나 20세기 간행된 『석문의범』의 내용은 시기가 내려가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가지고 본고에서 다루는 관음삼존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관음삼존상의 조성이 이들 자료보다 몇 세기나 시기가 앞서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록들로는 위태천이라는 새로운 도상적

오른쪽에 배치된 〈신중도〉가 1897년에 제작된 점을 볼 때, 협시상은 관음상이 조성된 1655년부터 불화들이 제작된 1897년 사이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²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250호로 지정된 석조관음보살입상으로 현재 고려 전기의 석불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석불에서 보이는 관음삼존도상은 조선후기에 집중되는 상들과 연관이 있어 좀 더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³ 문명대, 「흥천사(興天寺)불상의 성격과 1701년 법잠(法岑)작 목조(木造)수월관음보살(水月觀音普薩)삼존상 및 복장품 연구」, 『강좌 미술사』 53(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9)에서는 흥천사상을 단독으로 다루었으며, 예배용 수월관음 삼존상으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고할 논문이 있음은 본고를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필자는 이 상들이 수월관음 삼존상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또한 오랫동안 신앙되었던 관음보살과 관련된 작품들에 『법화경』과 『화엄경』의 영향이 지대했던 점에 비추어 보아 이 경전들이 수월관음 삼존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다라니경의 영향을 집중하여 살펴봄으로써 기존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차이만을 부각하였다. 2018년에 작성된 김연지의 석사논문인 「조선후기 관음보살삼존상 연구」(동아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18)는 아쉽게도 현재 목차만 공개되어 있어 본 논문을 작성하는 데 참조하지 못했다.

요소가 관음삼존상에 나타나게 된 연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 시기 위태천 도상 요소가 들어있는 관음삼존상들이 불교조각사에 새롭게 나타난 연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의 불교사적 배경과 신앙형태를 살펴보아야 하며, 아울러 대량으로 유통되었던 變相 版畫와 陀羅尼 판화 등 다양한 시각매체들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매체 간에도 영향관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첫 번째, 개별 관음삼존상의 분석을 통해 협시상에 위태천 도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두 번째, 관음삼존상에 위태천 도상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났던 주된 원인이 조선시대 『佛頂心陀羅尼經』에 수록된 권수 변상도와 <觀音菩薩圖> 陀羅尼의 영향이었음을 밝혀보겠다.⁴

이상들이 조성된 시기는 조선 중기부터 일어난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나선정벌 등 계속되는 외세의 위협과 전쟁, 大飢饉과 같은 재해로 인한 질병, 기근이 이어졌으며,⁵ 이로 인해 중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所願을 들어주거나 治病하는 현세 구복적 성격의 관음보살이 크게 信仰되었다. 이러한 기류에서 불교 經典의 간행은 다라니, 진언류가 비교적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본고에서 관음삼존상의 도상 근거로 새롭게 파악한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도와 <관음보살도> 다라니 또한 이 시기 유행하였다.⁶

이 권수 변상도와 다라니 판화들에는 고려 水月觀音圖와 다른 새로운 구성의 수월관음도상이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고려 수월관음도의 주된 구성은 관음보살과 선재동자로 이루어지며 용왕과 용녀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들어있는 고려불화는 많지 않은데, 조선시대

4 지금까지 발견된 8점의 관음삼존상 중 흥천사상, 보리암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상, 칠장사상을 제외하고 범주 사상과 안양암상, 운흥사상의 협시상은 크기가 아주 작게 조각되었다. 이처럼 작게 표현된 상들은 일반적으로 협시라고 불리는 상들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어 협시로 다루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8점의 관음삼존상은 수월관음을 나타낸 회화와 달리 다양한 수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항상 좌우로 두 존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모두 협시상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5 경신대기근(1670~1671), 을병대기근(1695~1696)은 서리, 눈, 우박, 한파를 비롯해 각종 냉해 혹은 홍수와 같은 각종 재해가 집중됨으로써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시기이다. 이규근, 「조선후기 疾病史 연구 - 『朝鮮王朝實錄』의 전염병 발생기록을 중심으로 -」 『國史館論叢』 96(국사편찬위원회, 2001), p. 8.

6 『불정심다라니경』과 <관음보살도> 다라니 판화에 대한 개별연구는 여럿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 판화들을 조선후기 관음삼존상과 연결짓지는 않았다. 『불정심다라니경』에 대한 연구는 김무봉, 「『불정심다라니 경언해』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45집(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윤혜진, 「조선시대 『불정심다라니경』 판화 연구」(동국대 불교예술문화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우진웅,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과 삽화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60(2014)를 참고. <관음보살도> 다라니 판화에 대해서는 정우택, 「조선전기 신도상 선묘관음보살도」, 『동학미술사학』 18(동학미술사학회, 2015); 김자현, 「은진 쌍계사의 16세기 단폭변상판화 연구」, 『미술사학연구』 300(한국미술사학회, 2018)를 참고하였다.

목판으로 간행되어 대량으로 유통된 『불정심다라니경』 권수 변상도와 〈관음보살도〉 다라니에서는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동자와 용왕, 용녀가 함께 나타나며, 무엇보다도 새로이 위태천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⁷

불교에서 경전은 불교 신앙 전파를 위해 가장 먼저 제작되고 교리의 기본이 되었으며,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변상도는 시각적인 도상의 교류, 유통에 일차 模本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본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상과 형식이 창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행하는 佛書의 양상은 그 시대의 佛敎史를 그대로 반영한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 간행된 다라니경과 이에 수록된 수월관음의 새로운 도상은 같은 시기 제작된 불화와 조각에 영향을 주었을 것을 자연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도상의 창출은 당시 불사 운영 주체인 化主나 施主者들의 신앙에 기반한 제작 요구를 匠人들이 수용하여 만든 결과였을 것이다.⁸ 이처럼 불서가 회화, 조각에 끼친 영향의 유기적인 흐름은 결국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논문은 조선시대 간행된 다라니의 수월관음 도상과 조각으로 형상화된 관음삼존상의 연결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II. 관음삼존상에 나타나는 위태천 도상 요소

기존 연구에서 단순히 동자⁹와 용왕¹⁰으로 파악하였던 관음삼존상의 협시상들에는

⁷ 1777년본 만연사 『제진언집』은 여러 가지 다라니경을 편집한 책으로 본고에서 다루는 『불정심다라니경』의 수월 관음도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존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관세음보살, 동진보살(위태천), 용녀, 용왕으로 표기되어 있어 참고하였다.

⁸ 이용윤, 「조선후기 편양문종의 불사와 승려장인의 활동」, 『미술사연구』 32(미술사연구회, 2017), p. 151. 미술품들은 대부분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이 되며, 그중에서도 불교미술을 비롯한 종교예술품은 종교의 전파나 교화를 위한 매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다. 송은석, 「조선후기 불전내 양식의 성행과 불상의 조형성」, 『미술사학연구』 263(한국미술사학회, 2009), p. 1.

⁹ 동자는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53선지식을 찾아 진리를 터득해 아미타불국토에 왕생하는 선재동자를 나타낸 것으로 고려 수월관음도부터 항상 등장하게 된다.

¹⁰ 용왕은 천룡 8부 중의 하나로 수많은 용들 중 가장 우두머리 용을 뜻하는데, 관음과 용이 등장하는 이른 시기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볼 수 있다. 용천의 팔부 시종이 의상을 굴속으로 인도하여 공중을 향해 예배하니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내주므로 의상이 받아 물러나 동해의 용이 여의보주를 바치므로 그것을 받아서 다시 7일간 재계하고 나서 관음의 진용을 보았다는 내용은(齋戒七日浮座具晨水上, 龍天八部侍從引入巖內. 參禮空中出水精念珠一貫給校勘之湘領受而退. 東海龍亦獻如意寶珠一顆師捧出. 更齋七日乃見真容. 『三國遺事』 3卷 塔像第四 洛山二大聖 觀音正趣 調信) 고려 수월관음도에서 용이 나타나는 도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때로는 독룡으로 사람에게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위태천 도상이 섞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8점의 관음삼존상을 협시의 도상을 통해 구분해보면 범주사상과 운흥사상을 제외한 6점에서 위태천 도상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1). 위태천은 원래 인도의 토속신이었던 스칸다(Skanda)가 불교의 호법신중으로 유입된 것이다. 위태천은 韋將軍, 韋馱菩薩, 童眞菩薩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며, 많은 호법신중 중 하나로 寫經이나 木版本 등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¹¹ 또한, 송대부터 관음보살과 밀접한 존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¹²

〈Table 1〉 관음삼존상의 현황과 분류
Present condition and Classification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Triad

Examples of the Sea God and Sudhana Iconography	The appearance of Skanda Iconograp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 seated Avalokiteshvara at Pöpchusa, 1655. ▶ Portable Shrine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Unhüngsa, 1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rtable Shrine of Wooden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Poriam, Namhae, 17th century. ▶ Wood seated Avalokiteshvara at National Museum of Korea, 17th century. ▶ Wood seated Avalokiteshvara at Hüngch'önsa, 1701. ▶ Wood seated Avalokiteshvara at Ch'ilchangsa, 1719. ▶ Seated Avalokiteshvara at Anyangam, 17-18th century. ▶ Stone standing Avalokitesvara Bodhisattva in Tökch'ölli.

그런데, 이처럼 대부분의 상에서 위태천 도상 요소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되지 않았던 배경은 무엇일까. 아마도 19세기부터 관음보살의 협시가 동자와 용왕으로 굳어지다가 20세기 간행집인 『석문의범』에서 ‘左補處 南巡童子 右補處 海上龍王’이라고 완전히 규정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¹³ 이와 함께, 기존에 가장 활발히 연구되었던 범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협시상이 용왕과 동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그리고 한국에 단독 위태천 조각상의 作例가 없다는 것도 지금껏 관음삼존상에 표현된 위태천 도상 요소가 발견되지 못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해를 끼치기도 하나 계를 받고 수호천신인 용왕으로 바뀌는 등 다양한 신앙이 전해진다.

¹¹ 이승희, 「中國宋代의 韋馱天信仰과 圖像고찰」, 『미술사연구』 19(미술사연구회, 2005) 참조.

¹² 수월관음도에 위태천이 표현되는 것은 남송대 수월관음 신앙과 위태천 신앙이 특별히 유행하여 두 신앙이 새로운 도상으로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김보형, 「韋馱天圖像研究-高麗朝鮮時代寫經畫와 木版畫를 中心으로」(東國大學 校大學院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01), pp. 66-69 참조.

¹³ 안진호가 1935년 기존의 불교의식 절차를 토대로 새로이 집대성한 불교의식집인 『석문의범』에 대해서는 김수현, 「조선중후기 관음경전 간행 연구」, 『문화사학』 24(한국문화사학회, 2005) 참조.

관음삼존상은 협시를 통해 분류하면, 용왕과 동자가 나타나는 그룹, 위태천도상의 특징적 요소들이 나타나는 그룹,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류는 위태천도상 요소가 나타남을 증명하기 위해 보는 이의 이해를 가장 쉽게 도울 수 있도록 만든 구분으로, 관음삼존상의 협시 구분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용왕과 위태천의 도상적 특징을 혼합하는 등 하나의 상에 두 가지 존상의 도상을 나타내어 기존에 볼 수 없던 조선시대의 새로운 상을 창출하였기 때문에 동자상, 용왕상과 같이 기존의 명칭으로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다.

예컨대, 용왕으로 보이는 상이지만 마치 위태천처럼 금강저와 유사한 지물을 두 팔에 수평으로 올려 들고 있는 보리암 목조관음보살불감, 용왕으로 보이는 상에 역시 위태천의 도상인 새 날개 장식이 달린 투구가 나타나는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양 협시 모두에 무장형 복식이 나타나는 칠장사 목조관음보살좌상, 금강역사 자세인데 무장형 복식의 상이 등장하는 안양암 관음보살상과 같이 지물, 투구, 복식을 통해 위태천 도상을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도상의 혼합을 보이는 상들을 통틀어 혼합상이라 지칭하여 다루겠다. 그러나 앞으로 이 상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는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어서 관음삼존상의 협시로 동자와 용왕이 나타나는 예를 운흥사상을 통해 살펴보고 (협시상이 後補되어 나중에 더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법주사상은 제외하였다), 협시상에서 위태천과 용왕의 도상이 혼용되는 예를 보리암상과 흥천사상의 작례를 통해, 동자와 위태천 도상이 혼용되는 예를 칠장사상을 통해, 위태천과 관련한 護法神衆의 의미가 표현된 특수한 작례의 예를 안양암상과 덕천리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용왕과 동자가 협시로 나타나는 관음삼존상

관음보살에 용왕과 동자가 협시되는 예는 1655년 作인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1670년 作인 운흥사 목조수월관음불감이 있다(Fig. 1). 후보 가능성이 있는 법주사상을 제외하면 운흥사 목조수월관음불감은 본고에서 처음 소개되는 유물로 위태천 도상의 혼합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예이다.¹⁴ 그러나 불감 양쪽 문에 金剛力士像 두 구가 조각되었는데, 이

¹⁴ 서울옥션 제139회 미술품경매에 출품되어 알려졌다. 서울옥션, 『Seated Buddha』(2016) 참조.



Fig. 1. <운흥사 목조수월관음불감>, Portable Shrine of Avalokiteśvara Bodhisattva at Unhūngsa, 1670, Courtesy of Lim, Young-ae

慧淨과 思敏, 印和 등이 참여하여 조성하였으며, 발원 내용은 고통의 세계에 빠지지 않고 삶이 끝날 때 질병과 고통이 없기를 기원하고 있다.¹⁵ 불감안을 살펴보면 관음보살의 좌우로 동자와 용왕이 조각되었고, 양쪽 문에 금강역사상이 배치되었다.¹⁶ 보살은 화려한 寶冠에 띠 장식이 양옆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보발이 아래로 늘어져 있다. 방형의 얼굴에 눈, 코, 입에서 경건함이 느껴진다. 天衣를 입고 있는데 가슴에 승각기가 보이며, 아래로 떨어지는 옷주름이 표현된다. 보살상은 遊戲坐를 취하였으며, 아담한 상을 조각함에도 배 장식이나 무릎 장식과 같은 부분을 섬세하게 표현하여 공을 들여 제작한 상임을 알 수 있다. 보살을 협시하는 동자와 용왕은 무릎을 꿇히고 합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동자상, 용왕상과 비슷하다. 양 문을 닫으면 대좌 위에 원통형의 불감이 올라가 있다. 대좌는 노출되었는데 상대와 하대에 연화를 표현하였다.

부분은 4장에서 후술할 안양암상에 나타나는 『불정심다라니경』과 관련된 호법신중의 예를 통해 고려해보면, 위태천 도상의 출현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라 조심스럽게 판단된다. 물론 금강역사가 문에 조각된 형식은 오랜 기간 내려온 불보살을 지키는 수호신 또는 성역의 상징체 표현으로 보아야 하지만, 금강역사상이 있기 때문에 협시상에 굳이 위태천을 표현하지 않았을 경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운흥사상은 복장물에 작은 크기의 발원문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제작연대와 발원자, 발원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상은 1670년(康熙 9)에

¹⁵ 康熙九年歲次庚戌七月十五日化主 觀音菩薩 敬造功德不墮惡趣願我臨終 無病苦 五知時至 不昏迷 善根慧明 轉增明業 債寬魔成. 雲興寺 畫員慧淨思敏印和別座敬贊供養主 贊謙文眼化主廣益時和尚 坦守引勸太英負木金婿房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 我等興衆生皆共成佛道. 서울옥선, 앞의 도록.

¹⁶ 금강역사를 흔히 인왕이라고 바꿔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20세기 일본에서 시작된 잘못된 명칭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747년 기록에 ‘금강역사 2구’라고 분명히 밝힌 기록이 있기 때문에 금강역사를 인왕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임영애, 「석굴암 금강역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신라문화』 32(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8)를 참고하여 금강역사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외에 금강역사에 관해서는 임영애, 「간다라의 금강역사」, 『중앙아시아연구』 9(중앙아시아학회, 2004); 임영애, 「중국 석굴의 금강역사-북위 후기 금강역사의 세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32(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9)를 참고.

2. 협시에 용왕과 위태천 도상의 혼합이 나타나는 관음삼존상

관음보살상의 좌우로 협시 동자상과 나머지 협시상에서 용왕과 위태천의 도상 요소가 혼합된 예를 남해 보리암 목조관음보살불감과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보리암상은 관음보살이 수인을 下品中生印 하고 오른손에 정병을 들고 있다(Fig. 2). 보관에는 化佛을 새기고 좌우로 보관 띠 표현을 하였으며 화염문 장식이 화려하다. 大衣는 U자로 떨어지고 가슴 부분의 띠를 간략히 표현하였다. 대좌는 양련과 복련으로 바로 이어진 중대가 사라진 형식이다. 보리암상은 불감의 형식, 재질과¹⁷ 상의 조각 수법으로 보아 인균이나 응원계보의 조각승이 1650년대 전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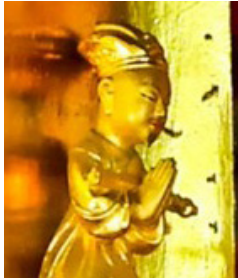


Fig. 2. <남해 보리암 목조관음보살불감>, Portable Shrine of Wooden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Boriam, Namhae, 17th century, Photograph by the author

관음보살의 왼쪽에는 쌍계를 한 동자가 관음을 향해 합장한 자세로 정면을 보고 있으며, 오른쪽에도 합장을 한 상이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이 상을 단순히 용왕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용왕의 지물은 여의주 또는笏을 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상은 위태천의 지물인 금강저와 비슷한 것을 팔꿈치 안쪽에 수평으로 올려 들었다(Table 2). 협사 관식이나 외모에서 용왕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합장을 하고 팔꿈치 안쪽에 긴 봉형의 지물을 수평으로 얹은 형식은 금강저를 합장한 팔꿈치에 수평으로 얹는 위태천의 기본 도상이다. 이처럼 협시상에서 위태천 도상 요소가 용왕과 같은 다른 존상의 도상 요소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경우를 혼합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흥천사상은 1701년에 조각승 法峇과 戒楚, 振悅, 性印, 守湄 등 5명이 참여하여 조성하였고,

¹⁷ 조선후기의 불감은 목조로 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불감에 관한 연구로는 최선일,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조선후기 <목조삼존불감>」, 『미술사연구』 16(미술사연구회, 2002); 정은우, 「여말선초의 금동불감 연구: 순천 송광사 고봉국사 불감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15(불교미술사학회, 2013)을 참고.

〈Table 2〉 위태천의 지물 부분 비교
Comparison of Skanda object

The statue of Poriam	Nilakantha Dharani	Guardian paintings of Unhaesa
		
17th century	16th century	1777

원래의 봉안처는 全羅北道 任實 獅子山 寂照庵이었음을 복장 발원문을 통해 알 수 있다(Fig. 3).¹⁸ 보살의 얼굴은 방형으로 미간에 수정이 감입된 백호가 있으며 눈은 가늘게 표현되었고 코가 오뚝하고 살짝 미소 지은 듯 보인다. 대의는 통견으로 넓게 벌어져 균의를 묶은 띠가 보이며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간 옷자락이 길게 늘어졌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하품중생인을 취하고 있고, 지물로 작은 정병을 들고 있다.



Fig. 3. 〈홍천사 목조관음보살좌상〉,
Seated Avalokiteśvara Bodhisattva at Hüngch'önsa,
1701, Courtesy of Im Lim, Young-ae

관음보살의 협시로는 정병을 들고 있는 동자상과 무복을 입고 좌우로 새 날개가 표현된 투구를 쓴 혼합상이 나타난다.¹⁹ 무복을 입은





¹⁸ 불상의 복장은 발원문과 붉은 비단에 싸인 후령통, 大佛頂首楞嚴神呪陀羅尼, 주서와 목서 다라니, 寶篋真言과 불교전적인 『묘법연화경』 2종이 날장 상태로 발견되었다. 문명대, 「홍천사(興天寺)불상의 성격과 1701년 법감(法峯)작 목조(木造) 수월관음보살(水月觀音普薩)삼존상 및 복장품 연구」, 『강좌 미술사』 53(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9); 유근자, 「홍천사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강좌미술사』 49(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7) 참조.

¹⁹ 홍천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는 복장물이 온전히 발견되었다. 그러나 복장물에는 협시상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 1890년에 제작된 홍천사 〈신중도〉의 화기에서 '남순동자 해상용왕 개채'라고 기록이 나타나지만, 후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조성 당시의 준명으로 볼 수 없다. 생각건대, 1701년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조성하면서 조선시대 수월관음 도상을 모본으로 협시상이 함께 조성되었고, 후에 어떤 이유로 관음보살의 협시로 좌우 남순동자, 해상용왕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협시를 지칭한 것이 홍천사 〈신중도〉 화기에 기록된 상황을 유추

상은 투구라는 위태천의 가장 특징적인 도상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용왕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 혼합상의 투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로의 구획선과 화염무늬와 새 날개 표현이 특징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용왕의 관식이라 볼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위태천의 투구에서 나타나는 것이다.²⁰ 이 부분은 위태천 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Table 3). 흥천사 혼합상에 표현된 투구는 요즘 사찰에서 쉽게 접하는 <신중도>의 위태천 투구 표현과 약간 차이가 있다. <신중도>에 위태천 투구 표현은 흥천사상 투구 표현과 비교해 새 날개 깃의 수가 많아 더 넓게 퍼져 보여 다른 느낌을 주는데, 이런 점 때문에 그동안 흥천사 혼합상의 투구가 위태천의 투구도상 요소임을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흥천사 혼합상의 새 날개 표현은 경전 변상도의 위태천 도상을 참고하면 새 날개가 7-8 가닥으로 표현되어 있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채색된 부분을 통해, 범주사 <신중도>에 표현된 위태천과 비교해 보면 투구의 바탕색이 금빛이며 가운데 구획선이 초록색과 홍색의 테두리로 표현된 점과 새 날개 밑동 부분은 푸른색으로 날개 깃 부분은 붉은색으로 칠한 점이 같음을 알 수 있다. 흥천사 혼합상은 위태천의 투구 표현을 보여주는 유일한 조각상이며, 1701년의 조성연대를 가지고 있어 회화에서 그려지는 예와 비교해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써 중요하다.

<Table 3> 위태천의 투구 부분 비교
Comparison of Skanda helmet

The statue of Hūngch'ōnsa ²¹		<i>Nilakantha Dharani</i>	<i>Guardian paintings of Pōpchusa</i>
			
1701		1477	1897

해볼 수 있다.

²⁰ 관식에 나타나는 새 날개에 대해서는 임영애, 「서역불교미술에서의 鳥翼冠과 冠帶-서아시아, 간다라, 서역 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 11(중앙아시아학회, 2006)에 도상의 흐름을 상세히 다루었다. 위태천은 중국 송대에 들어서 갑옷을 입고 새 날개 장식인 투구를 쓴 모습으로 정형화되었다. 임영애, 위의 논문, p. 133. 위태천의 투구형식은 좌우로 5-7가닥의 날개가 뻗어진 것, 고려와 조선시대 불경 변상에서는 투구 주위에 화염과 원형 두광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보형, 위의 논문, p. 33.

²¹ 문명대, 위의 논문에서 도판을 가져왔다.

3. 협시에 동자와 위태천 도상의 혼합이 나타나는 관음삼존상

칠장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²²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1718년(康熙 57)에 화주 允暎과 處輝등이 發願하여 수화승 一機, 善覺, 善一, 斗英 등이 제작하여 1719년에 안성 칠장사에 봉안한 것이다(Fig. 4).²³ 관음보살의 얼굴은 두툼한 방형이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으며, 코는 얼굴에 비하여 작고 미소를 짓고 있어 전체적으로 여유가 느껴지는 상이다. 어깨에 걸친 천의는 팔꿈치로 연결되어 무릎 옆으로 흘러 내리는 듯 보인다. 가슴에는 보살의 瓔珞 장식이나 무릎에는 甲帶가 표현되었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하품중생인을 취하고 있다.



Fig. 4. <칠장사 목조관음보살좌상>,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Chilchangsa, 1719, Photograph by the aut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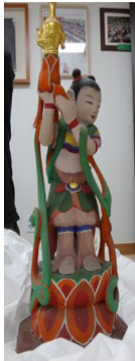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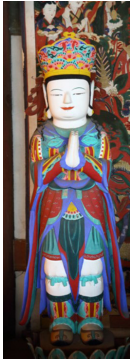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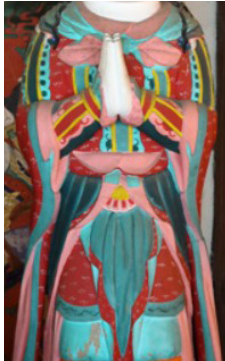

관음보살의 협시상은 양쪽으로 위태천도상 혼합을 보이는 동자상 두 구가 배치되었다. 이 칠장사상의 협시 동자상들은 다른 관음삼존상에 조각되는 동자상과 차이를 보인다(Table 4). 흥천사상을 대표로 비교해 보면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음보살의 협시로 표현되는 동자는 나체에 요의를 입고, 어깨에 천의를 걸친 모습인데, 칠장사상의 협시는 보관을 쓰고 무장형 복식을 입었다. 이처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도상 때문에 이 협시상들을 동자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칠장사 협시상들은 현재 동자상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다른 관음삼존상에서는 모두 동자가 빠지지 않고 협시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협시상을 동자와 위태천 도상 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혼합상으로 구분하였다.

칠장사상의 동자는 무장형 복식을 착용하였는데, 이는 위태천의 복식과 유사하다. 어깨에

²² 이 상에 대해 알려주시고 보리암상과 안양암상의 조성연대에 대한 조연을 제공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²³ 최선일, 『安城七長寺 木造觀音菩薩坐像과 彫刻僧一機』, 『문화사학』 38(한국문화사학회, 2012), pp. 126-127.

〈Table 4〉 동자 복식 비교
Comparison of Sudhana attire

The statue of Hūngch'ōnsa	The statue of Ch'ilchangsa		The attire of Skanda
 <p data-bbox="201 739 243 761">1701</p>		 <p data-bbox="505 739 547 761">1719</p>	 <p data-bbox="764 739 1089 761">Guardian paintings of T'ongdosa, 1804</p>

肩巾²⁴을 두른 것과 배 부분에 원형 腹甲의 착용, 그 아래로 내려오는 천 자락, 손목 부분의 장식이 위태천의 복식 표현과 같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칠장사상은 위태천적 요소가 나타나는 두 동자상을 협시로 둔 변형된 관음삼존상 도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는, 동진보살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에는 위태천을 동진보살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이 도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에도 위태천을 동진보살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보리암상과 흥천사상의 경우 용왕과 위태천 도상이 혼합되어 표현되고 있었는데, 이 상에서는 용왕으로 판단할 도상 요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칠장사상 협시에서 보이는 새로운 조각 도상의 창출은 관음삼존상을 조성할 때 위태천적 도상 요소 표현이 중요해졌음을 나타내면서, 『불정심다라니경』과의 관련성을 크게 보이는 예로써 중요하다.

4. 위태천과 관련한 호법신중이 표현된 관음삼존상

안양암 관음보살상은²⁵ 무늬가 없는 원통형의 보관을 썼으며 유희좌를 취하고 있다(Fig. 5).

²⁴ 어깨에 걸지거나 목에 감거나 해서 사용하는 사각형의 천을 말한다.

²⁵ 안양암 대웅전 아미타삼존상은 아미타상과 관음상의 조성에 대한 비교란이 미정으로 표기된 것과 달리 지장보살 좌상은 1889년 慶愷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조성연대가 정확히 나타난다. 안진호 편저, 『안양암지』



Fig. 5. <안양암 관음보살상>,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Anyang-am, 17-18th century, Photograph by the author

관음보살과 금강역사, 동자의 조합이 나타나는 예는 다른 조각작품은 물론 회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은연중 관음보살만을 표현하는 경우보다도 상이 가진 의미가 흐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지금껏 이 조합이 나타나는 연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양암에 나타나는 흡사 금강역사와 같은 협시의 경우 견건을 두른 무장형 복식을 차려

방형의 얼굴에 귀가 큼직하고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있다. 천의가 여러 겹 밑으로 늘어져 있으며 어깨는 둥글고 완만하며 두상이 신체에 비해 크게 보인다. 손의 표현이 경직되어 있는데, 이는 옥돌이라 지칭하는 佛石製로 조성한 상들에서 보이는 특징이다.²⁶ 아래에 왼쪽 발은 살짝 드러나 있지만, 오른발은 표현되지 않았다. 이러한 석조보살유희좌상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지만, 제작 연대가 알려진 예가 드물다. 그러나 단응이나 탁밀계보에 속한 조각승이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커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음보살의 협시를 살펴보면, 오른쪽에는 동자상이²⁷ 왼편에는 아직 판명되지 않은 협시상이 조각되었다. 좌협시는 얼굴에 한 손을 대고 허리에 한 손을 두는 금강역사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안양암 관음보살상은 ‘관음보살과 동자와 금강역사 또는 인왕이 함께 조각된 상이다’라고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안양암, 1958).

²⁶ 불석제 불상에 대한 논문으로는 이희정,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佛石製 佛像의 등장과 유행」, 『불교미술사학』 14(불교미술사학회, 2012); 송은석, 「조선 후기 불석제(佛石製) 불상과 조각승 승호(勝湖)·경옥(敬玉)」, 『국학연구』 34(한국국학진흥원, 2017); 최선일,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의 활동과 불상 연구」, 『선문화연구』 8(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0) 참조.




²⁷ 안양암 보살상에 조각된 동자는 도포를 입고 있고, 흥천사상의 동자는 정병을 들고 있는데, 이 도상들은 직지사 대웅전 관음벽화의 동자 도상에서 볼 수 있다. 직지사 대웅전의 연혁을 살펴보면 『직지사 대웅전 중창기』에 1649년(인조 27)에 중건된 이후 1735년(영조 11)에 중창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때에 벽화가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때, 도포 복식을 입거나 정병드는 동자 도상은 천의를 입고 합장한 기존의 동자의 도상보다 늦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입고 있어 나체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금강역사 도상과는 차이가 있다(Table 5). IV장에서 설명하겠듯이, 이러한 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라니경의 영향으로 생각되며, 호법신중이란 의미에서 위태천의 등장과 연결고리가 있다.

한편 덕천리상은 협시를 살펴보면 안양암상 협시와 수인이 다를 뿐, 견건이 표현되고 허리에 끈이 표현된 무장형 복식을 입고 있는 점이 유사하여 함께 분류하였다. 그러나 지물로 여의주와 유사해 보이는 것을 들고 있어 용왕과 호법신의 표현이 함께 나타나는 혼합상으로도 분류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관음삼존상 중에 안양암상과 덕천리상은 석조라는 재질에서 목조로 제작된 다른 상들과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점에서만 위태천 도상이 아닌 다른 호법신 도상 표현이 보인다는 것을 통해 재질로 인한 선택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석조는 목조에 비해 위태천 도상의 지물이나 투구, 무장형 복식 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양암상에서 금강역사상과 유사한 협시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관음삼존상에 위태천 도상이 나타나게 된 연유를 먼저 살펴본 뒤, IV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Table 5〉 관음삼존상에 표현된 호법신중
The appearance of Dharmapala

The statue of Unhüngsa	The statue of Anyangam	The statue of Tökch'ölli
		
1670	17-18th century	Chosön Presume

Ⅲ. 관음삼존상에 미친 『불정심다라니경』 권수 변상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영향

관음삼존상에서 혼합상의 발생은 조선시대에 관음보살과 위태천이 밀접한 관계였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조각하는 장인이 상을 조성하는데 위태천의 표현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회화나 판화로 표현되는 관음보살 이미지는 여러 인물들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조각상은 회화와 달리 독존, 또는 삼존 구성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상의 숫자에 한계가 있었다. 본 장에서는 2차원 매체, 특히 판화가 불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조성 숫자의 한계에 부딪혀 하나의 존상에 두 가지 도상을 표현한 협시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태천 도상이 섞여 나타나게 된 것임을 밝히도록 하겠다.

관음삼존상이 조성되기 이전에 위태천이 관음보살과 함께 표현된 예들을 찾아보면, 조선시대에 간행된 두 가지 다라니 관련 판화를 발견할 수 있다.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도와 〈관음보살도〉 다라니인데, 이들 판화에는 기존 고려 수월관음도와 다른 조선시대 새로운 구성을 보이는 수월관음 도상이 나타난다. 고려의 수월관음도는 관음보살과 동자의 구성이 기본이고, 아주 간혹 용왕과 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²⁸ 이후 조선에는 고려와 다른 수월관음 도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위태천이라는 새로운 존상의 등장이다. 고려의 수월관음도에는 없던 위태천이 조선시대 간행된 『불정심다라니경』의 수월관음 판화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이어질 내용의 이해를 위해, 明 成化本(1477년) 『불정심다라니경』을 통해 수월관음 권수 변상의 도상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Fig. 6).²⁹ 이 명대 성화본은 조선시대

²⁸ 강희정, 「고려 수월관음도상의 연원에 대한 재검토」, 『미술사연구』 8(미술사연구회, 1994); 황금순, 「고려 수월관음도에 보이는 『40화엄경』 영향」, 『미술사연구』 17(미술사연구회, 2003); 정우택, 「신출 고려시대 수월관음도」, 『동악미술사학』 2(동악미술사학회, 2001) 참조.

²⁹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송대의 『불정심다라니경』의 수월관음도가 전하고 있는데 조선의 것과 비교해 보면 관음보살 좌우로 동자와 용녀가 나타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추정컨대, 조선시대 불정심다라니경에 수록되는 수월관음 도상은 원대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중국의 경우 관음삼존상의 구성이 관음보살의 협시로 용왕과 용녀이거나, 동자와 용녀로 구성되는 작품이 다수 전하는데, 특히 송대에 가장 많이 보이고 관음과 동자, 위태천의 구성이 나타나는 예를 원대 杭州 飛來峰 石窟과 1325년 작인 북경 거용관 광목천왕 가슴부분에서 확인 가능한데, 다시 명대에는 관음보살과 용녀와 동자 협시로 나타나는 작품들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관음보살과 다양한 존상이 함께 등장하는 조각품의 이른 예로 생각되는 고려 1348년 작인 경천사탑의 4층 원통전 부조수월관음상의 경우도 원대의 영향으로 생각되어, 관음보살과 위태천이 함께 나타나는 도상은 송대나 명대에 비해 원대에 유행한 도상이지 않을까 추측된다. 본고에서는 관음삼존상이 조선 17-18세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되는 양상



Fig. 6. <명 성화본『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 수월관음도>, Water-Moon Avalokitesvara painting in Nilakantha Dharani (*The Great Compassion Mantra*), 1477, In the collection of Myeongjusa The Museum of Ancient Asian Woodblock Prints. Photograph by the author

『불정심다라니경』보다 간행 시기가 앞서면서 그 모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화본의 수월관음 권수 변상을 살펴보면, 왼편 측면 암반 위에 관음보살은 結跏趺坐를 취하고 있으며 왼편 아래로 동자가 있고, 오른편 아래에는 홀을 든 용왕과 여의주를 들고 있는 용녀가 나타난다. 관음보살의 오른편 상단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 구름을 탄 위태천이 나타나는데, 위태천은 구름 위에서 금강저를 수평으로 팔꿈치에 넣고 관음보살을 향해 합장하는 모습이다. 새 날개가 표현된 투구를 쓰고 무장형 복식을 하였으며, 화려한 화염 광배가 표현된다. 수월관음이 앉은 넓은 암반의 오른편에 튀어나온 작은 암반 위에는 버들잎이 꽃힌 정병이 있고, 관음보살의 뒤쪽으로 펼쳐진 배경에는 하늘을 나는 청조, 대나무숲, 세 봉우리의 산이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대량으로 간행된 『불정심다라니경』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영향으로 새로운 구성의 수월관음 도상이 동시기 불화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런 전체적 맥락 속에서 조선후기 관음삼존상에 위태천의 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임을 조명하도록 하겠다.

에 주목하여 같은 시기 유행한 『불정심다라니경』에 수록된 수월관음도와와의 영향 관계에 주목하였지만, 관음보살과 위태천이 함께 나타나는 도상 자체는 훨씬 이전부터 유통되었던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김민지, 『조선 17-18세기 관음삼존상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19), pp.59-63 참조; 정은우, 「고려시대의 관음신앙과 도상」, 『불교미술사학』8(불교미술사학회, 2009), p.122 도판 참조.

1. 『불정심다라니경』의 간행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경전이 간행되지만, 조선 중기부터는 특히 다라니류 간행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³⁰ 관음보살은 삼국시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신앙되었는데, 조선시대 관음 신앙은 밀교 다라니와 관련하여 유행하게 되는 점이 이전 시대와 비교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³¹

이러한 정황은 『불정심다라니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인수대비 발원본의 學祖가 남긴 발문에 “밀교에는 여러 종류의 책이 있지만 불정심다라니경이 가장 중요하여 그 신기하고 영묘한 자취와 기이한 흔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책을) 숭상하였으나 그 판본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구해서 지니고 다니기 힘든 지경이다.”³²라고 밝히며 다라니경을 간행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밀교 관련 경전이 여러 권 전해진 상황과 그중에서도 『불정심다라니경』이 특히 인기가 있었던 상황,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다.

『불정심다라니경』은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佛頂心經』이라고도 하며, 관음의 신비하고 영험한 힘을 가지고 있어 마음으로 읽고 몸에 지니면 여러 재난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는 신통력을 보여주는 경전으로 여겨졌다. 내용은 상·중·하로 이루어져, 이 다라니를 지니면 어떠한 위협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지거나 호법신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판별로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몇 장을 살펴보면, 관세음보살이 석가모니에게 일체의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기를 청하는 내용과 관세음보살이 다라니를 외우니 하늘이 寶花를 뿌리고 선남자 선여인이 神妙章句를 들으면 죄가 없어지며 큰 죄를 범하면 아버지간 지옥에 떨어진다는 내용, 꿈이 괴이하거나 어려운 병이 있을 때 이 다라니를 외우면 관세음보살이 大神力과 함께 金剛密迹을 圍遶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잘된다는 내용, 선남자 선여인이 경전 3권을 써서 공양하면 金剛密迹과 阿吒鉞拘羅神이 호위한다는 내용이 있다.³³ 이러한 내용은 上圖下文式으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 변상도가 수록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경전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본고에서 중요하게 여긴 점은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도로 고려와는 다른 구성을

³⁰ 김수현, 「조선중후기 관음경전 간행 연구」, 『문화사학』 24(한국문화사학회, 2005), pp. 141-143 참조.

³¹ 李逢春, 「朝鮮前期 佛典諺解와 그 思想」, 『韓國佛敎學』 5(한국불교학회, 1980); 洪潤植, 「韓國佛敎儀禮의 密敎信仰의 構造」, 『佛敎學報』 11(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5); 金秀炫, 위의 논문 참조.

³² 우진웅,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과 삽화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60(한국서지학회, 2014), p. 365.

³³ 우진웅, 위의 논문, pp. 350-351.

보여주는 수월관음도가 수록된다는 것이다. 이 불서는 고려시대에도 간행되었지만, 조선의 판본에서 처음 수월관음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판본이 전해져 간기를 통해 대량 간행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Table 6)을 통해 『불정심다라니경』이 13세기부터

〈Table 6〉 『불정심다라니경』 판본별 권수 변상도와 간기정보³⁴

The information of Editions and Illustrations in the *Buljungsimdharanikyung*

	Editions	Period	Illustrations	Colophons
1	The Ch'oe Ch'unghön-sponsored editions	1206-1219	×	The orderer wishes Ch'oe ch'unghön, Ch'oeu, and Ch'oe hang, father and sons, be free from hardship and be long-lived.
2	The Ossi-sponsored editions	1306	×	The orderer desires for his parents to live a long life, and hopes herself to get away from adversity.
3	The royal family-sponsored editions	1485	<i>Water-Moon Avalokiteshvara</i>	This drawing is made under the baton of dowager queen Insu. Hakjo led its painting to be detailed and delicate, and the inscription to be in the printed style of Chinese handwriting. This painting was modeled after the Tang dynasty, China.
4	The edition of Haet'aram temple	1561	<i>Water-Moon Avalokiteshvara</i>	In the 16 th year of Myöngjong, the palace republished vow made at Bodhisattva.
5	The edition of Anshim temple	1569	<i>Buddha Shakyamuni Preaching</i>	Anshimsa published this sutra in 1569.
6	The edition of Ungjöm temple	1570	×	Former chief priest Manhwi was in charge of fundraising for engraving and publishing,
7	The edition of Pongburam temple	1631	<i>Water-Moon Avalokiteshvara</i>	Söngan, Tokyöng, the engraver of Gimcheon, Hwangssi, Ikyöngnam and others, in a total of 17 people, donated for the publication of the sutra.
8	The edition of Pömö temple	1642	<i>Avalokitesvara bodhisattva</i>	Kyöngodoin vowed 1000 pieces of dharani and requested Söuktöin for engraving and Saninjöngnye and Ch'öan for painting.
9	The edition of Shin'gwang temple	1711	<i>Water-Moon Avalokiteshvara</i>	By referring to the version made in 1485, Ch'oeuyong wrote a draft version on paper and Ch'ongan draw Buddhism icons for the new version.
10	The edition of Pojöng temple	1876	×	Yonggangsänong engraved 100 pieces of sutras to memorize and recite
11	The edition of Samsöngam temple]	1881	<i>Buddha Shakyamuni Preaching</i>	In 1908, 500 pieces of the sutras were distributed, which was engraved in 1881.
12	Sönghwabon	1477	<i>Water-Moon Avalokiteshvara</i>	

³⁴ 윤혜진, 앞의 논문, p. 28. (표 2)를 통해 간행연도와 수월관음도의 수록 여부를 참조하였으며, 우진웅, 앞의 논문, pp. 54-64를 참고하여 간기 내용을 추가 편집하였다.



19세기까지 꾸준히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첫 간행의 주도는 왕실에서 이루어졌으며 17세기에는 1,000부를 제작하는 등 대량 간행된 사실도 확인된다. 이러한 정황은 『불정심다라니경』의 유행을 보여주며, 불서의 내용은 물론 함께 수록되는 수월관음도 또한 대중에 대량으로 수용되고 유통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³⁵ 이렇게 확산된 수월관음도는 같은 시기 제작된 불화나 조각상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모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2. 『불정심다라니경』에 수록된 수월관음도

조선시대에 간행된 『불정심다라니경』은 여러 판본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권수에 수월관음도를 수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의 〈수월관음도〉에서 관음보살과 선재동자로 나타나던 구성이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인 수월관음도에서는 관음보살과 동자는 물론 용왕과 용녀, 위태천 등 새로운 존상들이 추가된다. 용왕과 용녀는 고려 〈수월관음도〉에는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던 도상이었다(Table 7).³⁶ 본고의 논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태천이라는 새로운 존상이 『불정심다라니경』의 수월관음도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Table 7〉 고려 〈수월관음도〉에 표현되는 용왕과 공양자

The Sea God and Buddhist Donor expressed in Koryŏ Water-Moon Avalokiteshvara Painting

The Taedŏksa Collection of Koryŏ Water-Moon Avalokiteshvara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Collection of Koryŏ Water-Moon Avalokiteshvara
	

³⁵ 조혜미, 「『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變相版畫 연구: 東草 普光寺 소장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2019)에 경전의 변상판화가 사천왕 도상 확산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을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보면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인 수월관음도 또한 확산되어 관련 미술품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³⁶ 고려 수월관음도에서는 관음보살과 동자 이외에 용왕과 관련 군상이 함께 나타나는 예가 일본 대덕사 소장 고려 〈수월관음도〉와 메트로폴리탄 소장 〈수월관음도〉 2점이 전해지고 있고, 나라국립박물관의 고려 수월관음도와 같이 동자와 여의주를 권용이 표현되는 예가 간혹 있다.

위태천은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에는 등장하지 않고 1485년 인수대비 발원본 『불정심다라니경』에 수록된 수월관음도에서 처음 나타나며(Fig. 7), 고려시대의 『법화경』 「보문품」 변상도로 수록된 수월관음도가 관음과 동자로 구성을 보이는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Fig. 8).³⁷ 『불정심다라니경』의 여러 판본 중 가장 영향력을 준 것으로 생각되는 판본은 인수대비 발원본(1485년)이다. 왕실 주도로 간행되었고 이후에 간행된 판본들이 이를 모본으로 翻刻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刊記에서 밝히듯 중국의 것을 모방하여 제작되었다고 한다.³⁸

여러 판본의 권수 변상도 수월관음도들은 범어사본을 제외하고 같은 도상을 공유하지만,³⁹ 인물 생김새나 장식, 정병, 좌법, 필선, 크기, 위치 등 세부적 표현들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1485년 왕실 발원본은 간기에서 명대의 판본을 모본으로 제작하였음을 밝히고 있지만, 앞서 간략히 살펴본 명대 성화본과 비교해 보면, 위태천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고 관음보살에



(Left) Fig. 7. <왕실 발원본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 수월관음도>, Water-Moon Avalokitesvara painting in Nilakantha Dharani (The Great Compassion Mantra), 1485, Photograph source: Woo, Jin-Woong, “A Study about the Editions and the Illustrations of Buljungsimdharanikyung”, Söjihakyön’gu 60 (2014): 369

(Right) Fig. 8. <백지금니 금강 및 보문발원>, Transcription of the Diamond Sutra, the Lotus Sutra, and Buddhist Monk Yeongga’s Invocation in Gold on White Paper, 1371, In the collection of Jikji-sa. Photograph sourc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atabase

³⁷ 직지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백지금니 금강 및 보문발원은 『金剛般若波羅密經』,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禪宗永嘉集』의 세 경전과 글을 모은 책이다. 경전의 발문에 ‘洪武四年辛亥七月日誌 施主比丘尼妙智同願比丘尼妙殊’라고 기록이 남아있어 1371년(공민왕 20)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변상도가 수록되는데 이중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을 대표한 변상도가 수월관음도이다. 여기에 관음보살과 동자가 나타난다.

³⁸ 命工人效唐本詳密而圖之楷正而寫之鏤而刊之以壽其傳… 왕실발원본 『불정심다라니경』에 실린 學祖의 발문 부분 발췌. 우진웅, 앞의 논문, p. 365.

³⁹ 범어사본에 수록된 수월관음도는 연화에 앉은 독존 관음보살을 표현하였다.

더 가까이 위치하는 것과 동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다(Fig. 6, Fig. 7). 회화에서는 종종 존상의 크기나 위치로 중요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 방법을 염두에 두면, 명대 판본이 조선으로 들어온 후 위태천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관음보살과의 관계에서 그 중요도가 커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불정심다라니경』에 수록된 수월관음 도상이 조선시대 불화 수월관음도에 영향을 준 예들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조선시대 불화로 제작된 〈수월관음도〉 중 관음삼존상이 제작되었던 18세기까지의 작례들을 살펴보면, 이 중 8점의 〈수월관음도〉에 용왕, 용녀, 위태천이 몇 가지 다른 조합으로 동자와 함께 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8). 위에서 서술했듯이 이러한 위태천, 용왕, 용녀는 고려시대 불화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드물게만 등장했던 도상들이다. 따라서 이들 〈수월관음도〉에 나타나는 존상들에서 『불정심다라니경』에 수록된 수월관음도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불화의 배치 구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어 살펴보겠다.

(Table 8)에 포함된 불화 중 대표적인 작품을 몇 가지 골라 살펴보고자 하겠다. 첫 번째, 일본 광복호국선사[日本 廣福護國禪寺] 소장 〈수월관음도〉는 16세기 추정 작으로 상단에서 나타나는 위태천과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용왕과 동자의 구도가 일반적인 고려

〈Table 8〉 위태천, 용왕, 용녀가 나타나는 조선시대 〈수월관음도〉

The appearance of Skanda, the Sea God and the Princess of the Sea God in the *Water-Moon Avalokitesvara*

	Title	Period	The attendant of <i>Avalokitesvara Bodhisattva</i>
1	<i>Water-Moon Avalokitesvara</i> collected by the Kwangbok 'hoguksönsa, Japan	15-16th century	The Sea God, Sudhana, Skanda
2	<i>Water-Moon Avalokitesvara</i> collect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Early Chosön Period	The Sea God, Sudhana, Skanda
3	<i>Avalokitesvara Bodhisattva Painting</i> of Hüngguksa Temple	1723	The Sea God, Sudhana
4	<i>Avalokitesvara Bodhisattva Painting</i> of Unheungsa Temple	1730	The Sea God, the Princess of the Sea God, Sudhana
5	<i>Water-Moon Avalokitesvara</i> collect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1748	Skanda, Tongja
6	<i>Avalokitesvara bodhisattva Painting</i> collect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1800	The Sea God, the Princess of the Sea God, Sudhana
7	<i>Water-Moon Avalokitesvara</i> collected by the Boston Museum	18th century	The Sea God, Sudhana
8	Wall Painting of Daeungeon Hall at Jikjisa Temple	17-18th century	The Sea God, Sudhana

〈수월관음도〉와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며, 『불정심다라니경』에 수록된 수월관음도와는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Fig. 9). 『불정심다라니경』의 수월관음도와 비교해 보면 위태천은 금강저를 합장하여 들고 있는 자세나 투구와 무장을 한 복장, 광배 화염의 표현이 거의 같고, 관음을 향해 합장하는 동자와 용왕의 도상, 관음보살이 앉은 자리와 암벽, 정병의 표현 등 세밀한 부분에서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다른 점은 관음보살이 화면 중심에 그려지는 구도나 관음의 사라와 장식 등의 표현, 용왕의 관식과 복장에서 차이를 보이며, 용녀가 표현되지 않는다.

두 번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는 조선초기 추정작으로 화면 모서리에 사천왕 추정 도상들이 표현되었고 상단에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여래가 왼쪽에는 여의주를 든 용왕과 합장하는 자세의 동자가 나타난다(Fig. 10). 하단 중앙에는 위태천이 금강저를 수평으로 들고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수월관음도에서 위태천의 등장은 『불정심다라니경』의 영향이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점은 이 불화의 상단 중앙 부분에 그려진 여래가 구름을 타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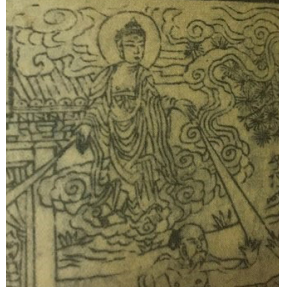


(Left) Fig. 9. 일본 광복호국선사 소장 〈수월관음도〉, *Painting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kwang-bok'oguksōnsa, Japan, 15-16th century, Photograph source: Kim, Mi-kyung, "A study of Avalokitesvara Buddhist paintings of Chosun Period", *Munhwa sahak* 14 (2000): 158

(Right) Fig. 1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 *Painting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Early Joseon Period, Photograph source: e-museum Database

도상이다. 기존에는 이 도상을 내영여래의 표현으로 보았는데,⁴⁰ 『불정심다라니경』의 내용 중 상권 8장에 머무르거나 누울 때 항상 부처가 나타나 죄를 모두 소멸시킨다는 내용과 관련한 변상도에서 구름을 탄 여래가 표현되며, 매우 유사함을 살필 수 있다(Table 9).

〈Table 9〉 구름을 탄 여래 도상 비교
Comparison of the Buddha Iconography

Water-Moon Avalokitesvara collect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Nilakantha Dharami of Sŏnghwa-bon	Nilakantha Dharami of Wangshil parwŏn-bon
		
Early Chosŏn Period	1477	16th century

그리고 사천왕의 표현으로 본 도상들은 『불정심다라니경』의 내용과 변상도에서 호법신이 자주 등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 호법신중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화는 지금까지 단순히 조선시대에 제작된 수월관음도라 여겨졌는데, 『불정심다라니경』의 내용 중 상권 8장에 구름을 탄 여래가 등장하는 점, 위태천이 나타나는 점 등을 통해 『불정심다라니경』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다.

세 번째, 운흥사 〈관음보살도〉는 1730년에 義謙이 주도하고 辛宗, 採仁 등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기록이 전하고 있다(Fig. 11). 운흥사 〈관음보살도〉에는



Fig. 11. 고성 운흥사 〈관음보살도〉, Avalokitesvara Bodhisattva Painting of Unhŭngsa, Gosŏng, 1730. Photograph source: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⁴⁰ 김미경, 「조선시대 관음보살도의 형식 고찰 -독존좌상도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14(한국문화사학회, 2000), pp. 109-110.

위태천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용왕, 용녀의 구도에서 『불정심다라니경』의 수월관음도와 같이 용왕과 용녀가 한 쌍으로 그려지는 점과 표현되는 크기에서 연관성이 짐작된다.

고려의 〈수월관음도〉는 『華嚴經』 「入法界品」이나 『法華經』 「普門品」의 내용을 담은 도상들이 선호되고 이를 토대로 제작되어 관음보살과 선지식을 구하는 선재동자가 주요 내용이였다. 그런데 조선에 들어오면 선재동자 이외에 용왕, 용녀, 위태천과 같은 새로운 존상들이 추가되어 등장하는 『불정심다라니경』에서 영향받은 수월관음도가 제작되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관음보살도〉 다라니에 나타나는 위태천

『불정심다라니경』과 비슷한 시기 관화로 제작된 다라니가 전해진다. 〈관음보살도〉 다라니는 정확한 존명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해수관음도, 연화좌 수월관음도, 관음보살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Fig. 12).⁴¹ 이 다라니는 恩津 雙溪寺本, 圓光大 소장본, 甲寺 소장본, 松廣寺本(1606), 海印寺本(시기미상), 雲興寺本(1678)이 전해지고 있다.⁴²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관음보살도〉 다라니가 〈勸修淨業往生捷經圖〉와 한 장의 판목에 앞, 뒤로 함께 판각되어 있는 목판이 전해져, 이 판화도 염불 수행을 위해 제작되었던 〈권수정업왕생첩경도〉와 같이 어딘가에 걸어두고 염불을 하거나 예경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³

〈관음보살도〉 다라니를 살펴보면 여러 개의 연화가 피어나고 연잎 위에 보살과 정병이 있고, 아래편 해수 사이에는 동자와 위태천이 나타난다. 그러나 관음보살이



Fig. 12. 송광사본 〈관음보살도〉 다라니, Avalokitesvara Bodhisattva Dharani. 1606. Photograph source: Chung, WooThak, “Line-drawing Painting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Dating from the Early Chosŏn Period”, *Tonghak misulsaahak* 18 (2015): 15

⁴¹ 정우택, 「조선전기 신도상 선묘관음보살도」, 『동학미술사학』 18(동학미술사학회, 2015); 김자현, 「은진 쌍계사의 16세기 단폭변상판화연구」, 『미술사학연구』 300(한국미술사학회, 2018) 참조.

⁴² 정우택, 위의 논문, p.23.

⁴³ 김자현, 「조선전기 불교변상판화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pp.235-238.

일반 여인처럼 표현되고 있는 점과 전체적으로 배경이 보타락가산이 아닌 연꽃에서 피어나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존의 수월관음도와는 다르며 새로운 도상이다.⁴⁴

특히 주목할 점은 『불정심다라니경』의 수월관음도에서 하단에 표현되던 용왕과 용녀가 사라지고, 상단에 표현되던 위태천이 하단에 내려와 동자와 삼존 배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음보살도> 다라니는 위태천 존상의 의미가 동자만큼이나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다라니와 『불정심다라니경』의 직접적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 그러나 위태천이라는 도상을 연결고리로 추정해보면, 『불정심다라니경』을 통해 위태천과 같은 호법신의 이미지가 관음보살을 표현할 때 중요해졌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반영되어 위태천 존격의 중요도가 더 높아진 <관음보살도> 다라니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관음보살도> 다라니가 불화로 그려진 수월관음도에도 영향을 준 예를 1748년작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Fig. 13).⁴⁵ 화면 상단이 아닌 하단에 위태천이 동자와 함께 관음을 중심으로 삼존을 이루는 구도가 같은데, 이는 다른 관음 도상에 나타나지 않는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이 다라니가 수월관음도에 끼친 영향을 알 수 있으며, 이처럼 불화에 영향을 주었다면 관음삼존상의 구성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Fig. 1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 *Painting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1748, Photograph source: e-museum Database

⁴⁴ 연화에 앉은 관음보살이라는 점은 유일하게 독존 관음이 표현된 범어사본 『불정심다라니경』에 수록된 관음보살도와 의 영향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고와 관련해서는 당시 관음도상의 공유라는 부분에서 서로 밀접하게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⁴⁵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는 太白山人 비구 瑞淸과 日暎 두 화승에 의해 제작되었다. 서청은 18세기 활동했던 화승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2015).

IV. 관음삼존상에 호법신중 도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그 의미

앞서 『불정심다라니경』에 수록된 수월관음도와 <관음보살도> 다라니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이 다라니들이 조선시대 관음삼존상과 수월관음도에 끼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선후기 관음삼존상에 위태천과 관련된 도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당시에 대량으로 간행되고 널리 유통되었던 『불정심다라니경』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영향임을 알 수 있었다.

Ⅱ장과 Ⅲ장에서 위태천 도상에 주목하여 관음삼존상은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인 수월관음도를 표현한 것임을 증명하였는데, 이는 관음삼존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권수 변상도는 불서의 내용, 즉 사상을 함축하는 시각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표현되는 권수 변상도의 기능을 이해하면,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도를 표현한 관음삼존상은 『불정심다라니경』과 관련한 내용과 사상을 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불정심다라니경』은 지니기만 해도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관음이 소원을 들어주거나, 아이를 순산하게 하거나, 호법신의 보호를 받게 되거나, 이외에 다양한 신통력을 언급하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관음삼존상을 통해서도 이러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Ⅲ장에서 살펴보았듯, 『불정심다라니경』이 조선 왕실로부터 간행되어 크게 유행한 배경을 고려해보면, 어쩌면 관음삼존상의 조성은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불정심다라니경』 이외에 <관음보살도> 다라니 또한 眞言을 외우고 독송하고 念誦하여 관음보살을 불러 소원을 성취하는 내용의 다라니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밀교 다라니와 관련한 관음 신앙이 대중에 스며들었으며, 이러한 기류가 반영된 관음삼존상이 조성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⁴⁶

『불정심다라니경』과 <관음보살도> 다라니가 관음삼존상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보면, Ⅱ장에서 언급했던 안양암상에 금강역사와 유사한 모습을 한 협시가 등장한 이유도 설명할 수

⁴⁶ 김연미, 「요나라 조양북탑(朝陽北塔) 사리공과 진언종 여법존승법(如法尊勝法)의 기원」, 『미술사와 시각문화』 10(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1)를 통해 의례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요대 미술사 자료와 일본 문헌 자료를 통해 의례적 기능의 전파를 구체화시켰으며, 『불정존승다라니염송의궤법』에서 비로자나를 중심으로 한 만다라를 제작하는데, 조양북탑의 사리공에도 <비로자나팔대보살만다라>가 새겨져 나타나 사리공에 나타난 『불정존승다라니』의 효험을 비는 불교 의례와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밀교 다라니가 미술품에 영향을 주는 사례는 본고에서 『불정심다라니경』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도상을 그대로 나타낸 관음삼존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있다(Fig. 5). 즉, 『불정심다라니경』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고,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우선 안양암 관음삼존상의 구도를 살펴보자. 금강역사상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 호법신은 관음보살의 두 협시 중 하나로 표현되어 다른 협시인 동자와 동급의 존상으로 표현되었다. 구도면에서는 <관음보살도> 다라니에 나타난 관음, 동자, 위태천의 삼존 구도에서 위태천이 가졌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Fig. 5, Fig. 12). 그리고 이 상이 봉안된 안양암 사찰은 염불신앙의 성격이 굉장히 짙은 사찰인데, 염불을 하거나 예경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음보살도> 다라니와는 염불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연관이 있다.

여기에서 더더욱 중요한 점은 『불정심다라니경』의 내용에 금강역사가 등장하는 점이다. 『불정심다라니경』에 포함된 변상도 중 하나에 ‘이 경을 외우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금강신이 지켜준다’ (誦經之人隨處有金剛神衛護) 라는 제문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경전 하권의 본문에는 항상 百千의 那羅延, 金剛密跡과 大力無邊의 阿吒鉞拘羅神이 몸에 劔輪을 지니고 낮과 밤을 쫓아다니며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⁴⁷ 나라연은 힘이 뛰어난 천상의 역사를 이르는 것이며, 금강밀적은 손에 금강저를 들고 불법을 수호하는 천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⁴⁸ 『불정심다라니경』은 총 3권으로 구성되는데, 각 권의 큰 주제를 구분해보면, 상권은 관음보살의 신통력을, 중권은 출산에 관련한 사항을, 하권은 다양한 호법신이 나타나 지켜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면, 안양암상에 협시로 나타난 호법신은 『불정심다라니경』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며, 특히 『불정심다라니경』의 하권과 연관이 깊은 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양암상의 협시는 금강역사의 수인을 보이지만 조선시대 『불정심다라니경』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에 영향 받은 호법신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로 제작된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술한 윤흥사상의 경우도 문에 조각된 금강역사를 호법신중의 등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불정심다라니경』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Fig. 1).

한편으로는 조선시대에 금강역사라는 지칭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금강역사보다는 將軍으로 기록됨을 여러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물에서 살펴볼 수 있다.⁴⁹ 어떤 이유로 금강역사의

47 是人若住若臥危險之處常有百千那羅延金剛密迹大力無邊阿吒鉞拘羅神身持劔輪隨逐日夜作衛無難不除無災不救無邪不…。명성화본(1577) 『불정심다라니경』 내용 중 발췌.

48 김무봉, 앞의 논문, p.370.

49 1667년 화순 쌍봉사 지장보살, 1672년 순천 동화사 지장보살, 1673년 합천 해인사 지장보살, 1681년 창원 성주사

도상을 보이는 상들이 조선시대에 장군이나 建靈神將, 守門直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 중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여러 전쟁을 겪은 배경과 연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용례의 기록을 통해 안양암상의 협시 호법신상은 금강역사와 유사한 모습을 가진 도상이 장군으로 인식되었던 상황에서 위태천 대신 조각된 것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종합해보면, 관음삼존상에 표현되는 위태천 도상을 통해 『불정심다라니경』과의 연관성을 유추해볼 수 있었으며, 아울러 상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관음보살과 관계된 존격 중 동자만큼이나 호법신의 표현이 중요해졌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조선시대 억불정책과 빈번했던 전쟁, 기근 등 사회적 배경과 이로 인해 유행한 『불정심다라니경』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간행 등 여러 요인이 합쳐져 생긴 현상으로 여겨진다.

V. 맺음말

관음삼존상은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총 8점이 전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관음삼존상의 협시를 단순히 해상용왕과 남순동자로 언급해 왔지만, 본고에서는 각각의 상을 자세히 분석하여 동자와 용왕뿐 아니라 위태천 도상이 협시상에 혼재되어 나타남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었다. 관음삼존상에 위태천 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의 수월관음도를 통해 살펴보고, 『불정심다라니경』의 내용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에 나타나는 존격의 구성과 구도를 통해 안양암과 운흥사 관음삼존상에서 나타나는 금강역사의 도상을 호법신중의 의미로 풀어내었다. 그 결과 협시상이 후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법주사 관음삼존상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관음삼존상이 조선시대 『불정심다라니경』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관음삼존상은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인 수월관음도를 나타내고자 동자와 용왕,

지장보살 등 조성발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선일, 『조선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 II』(파주: 양사재, 2018) 참조. 그리고 일제강점기 사찰 재산대장에는 將軍, 建靈神將(칠곡송림사. 조선총독부 관보 1691호), 守門直, 門直 등으로 적혀 있다. 최선일, 『일제강점기 경북사찰 재산대장 집성』상·중, (안동: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2019) 참조. 귀한 정보를 알려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태천을 포함하여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조각상의 경우 존상의 표현이 비교적 자유로운 회화와 달리 삼존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약으로 인해 하나의 협시상에 두 가지 도상을 섞어서 나타낸 혼합상이 창출된 것이다. 조선후기 관음삼존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두 존격의 도상을 혼합하는 형식은 다른 상에서는 볼 수 없는 유일한 예로, 위태천을 포함한 다양한 존상을 협시로 담아내고자 한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관음삼존상에 위태천의 도상 요소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선 시대 <수월관음도>에서도 위태천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또한 『불정심다라니경』의 영향으로 조성되었음을 여러 불화작품을 분석하여 추정하였다. 이로써 『불정심다라니경』의 유행이 조각뿐 아니라 회화 등 조선시대 관음의 시각적 표현에 영향을 준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동자, 용왕, 위태천으로 구성되는 수월관음의 구성은 기존의 『법화경』 「보문품」, 『화엄경』 「인법계품」을 기반한 고려의 수월관음도와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며, 조선시대 유행한 『불정심다라니경』과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진언과 독송, 염송과 관련된 밀교적 다라니의 성격과 의미를 관음삼존상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전과 달리 관음보살과 함께 호법신중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

다라니경과 불화, 불교조각에서의 도상 공유는 새로운 수월관음 도상이 조선시대에 다양한 매체를 거쳐 수용, 확산되었던 전체적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조각매체인 관음삼존상에 보이는 조선시대의 새로운 수월관음 구성을 표현하기 위한 혼합형 도상의 발생은 그 당시 사람들의 염원이 조각상에 끼친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조선후기 위태천 또는 무장을 한 모습으로 표현된 호법신중의 도상이 관음삼존상에 새로이 도입되었던 것은 더 강하게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존재를 갈구해야 했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어 보이며, 넓게는 소중한 것을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고픈 그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의 투영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전하는 숫자가 많지 않지만, 관음삼존상은 조선후기 불교 조각사적 성격이 극명화된 상으로써 그 미술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key words)** _조선후기(朝鮮後期, Late Joseon), 관음삼존상(觀音三尊像, Avalokitesvara Triad), 수월관음(水月觀音, Water-Moon Avalokitesvara), 위태천(韋駄天, Skanda-Karttikeya), 호법신중(護法神衆, Dharmapala),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 Buljeongsimdharani-gyeong), <관음보살> 다라니(觀音菩薩 陀羅尼, Avalokitesvara Dharani)

참고문헌

1. 사료

『大方廣佛華嚴經』 『入法界品』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佛頂心陀羅尼經』
『三國遺事』
『朝鮮王朝實錄』

2. 한국어 문헌

강희정, 「고려 수월관음도상의 연원에 대한 재검토」, 『미술사연구』8, 1994.
_____, 「중국 관음보살상 연구-남북조시대에서 당까지」, 일지사, 2004.
_____, 「관음과 미륵의 도상학」, 학연문화사, 2006.
국립중앙박물관,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 2015.
김무봉, 「『불정심다라니경언해』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45집, 2008.
김미경, 「조선시대 관음보살도의 형식 고찰-독존좌상도를 중심으로-」, 『문화사학』14, 2000.
김민지, 「조선 17-18세기 관음삼존상 연구: 조선시대 수월관음도의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19.
김보형, 「韋馱天圖像研究-高麗朝鮮時代寫經畫와 木版畫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김수현, 「조선시대 관음도상과 신앙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_____, 「조선중후기 관음경전 간행 연구」, 『문화사학』24, 2005.
김연미, 「요나라 조양북탑(朝陽北塔) 사리공과 진언종 여법존승법(如法尊勝法)의 기원」, 『미술사와 시각문화』10, 2011.
김자현, 「조선전기 불교변상관화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_____, 「은진 쌍계사의 16세기 단폭변상관화 연구」, 『미술사학연구』300, 2018.
문명대, 「흥천사(興天寺)불상의 성격과 1701년 법잠(法岑)작 목조(木造) 수월관음보살(水月觀音菩薩)삼존상 및 복장품 연구」, 『강좌 미술사』53, 2019.
서울옥션, 『Seated Buddha』, 2016.

- 송은석, 「조선후기 불전 내 양식의 성행과 불상의 조형성」, 『미술사학연구』263, 2009.
- _____,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 _____, 「조선후기 불석제佛石製 불상과 조각승 승호勝湖·경옥敬玉」, 『국학연구』34, 2017.
- 우진웅, 「한국 밀교경전의 판화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논문, 2010.
- _____,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과 삽화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60, 2014.
- 윤혜진, 「조선후기 『불정심다라니경』 판화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승희, 「중국 송대의 위태천 신앙과 도상 고찰」, 『미술사연구』19, 2005.
- 이용윤, 「조선후기 편양문중의 불사와 승려장인의 활동」, 『미술사연구』32, 2017.
- 임영애, 「서역불교미술에서의 鳥翼冠과 冠帶-서아시아, 간다라, 서역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11, 2006.
- _____, 「석굴암 금강역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신라문화』32, 2008.
- 정우택, 「신출 고려시대 수월관음도」, 『동악미술사학』2, 2001.
- _____, 「조선후기 신도상 선묘관음보살도」, 『동악미술사학』18, 2015.
- 정은우, 「고려시대의 관음신앙과 도상」, 『불교미술사학』8, 2009.
- 최선일, 『조선후기 승장인명사전-불교조소』, 양사재, 2007.
- _____, 「安城七長寺 木造觀音菩薩坐像과 彫刻僧一機」, 『문화사학』38, 2012.
- _____, 『조선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 Ⅱ』, 양사재, 2018.
- 황금순, 「고려 수월관음도에 보이는 『40화엄경』영향」, 『미술사연구』17, 2003.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Chosŏnwangjo shillok [Annals of the Chosŏn Dynasty].

Myobŏp yŏnhwagyŏng [The Lotus Sutra], T. 9, no. 262.

Pulchŏngshim daranigyŏng [Nilakantha Dharani].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compiled by Iryŏn (1206-1289).

Taebanggwangbul hwaŏmgŷŏng [The Flower Garland Sutra], T. 9, no. 278.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Ch'oe Sŏnil (Choi, Sun il), “*Chosŏn hugi sŭngjanginmyŏngsajŏn* [The biographical dictionary in Late Chosŏn of Buddhist monk artisan]”, Yangsajae, 2007.

_____, “*Ansŏng Ch'ilchangsa mokcho Kwanŭmbosalchwasang kwa chogaksŭng Ilgi* [Ansŏng Ch'ilchangsa Wooden seated Avalokiteśvara and monk sculptor Ilgi]”, *Munhwa sahak* 38 (2012): 121-137.

_____, “*Chosŏn hugi pulgyo chogak parwŏnmun sŏnjip II* [The dedicatory prayers of Buddhist sculptures in the Late Chosŏn II]”, Yangsajae, 2008.

Chŏng Ŭnu (Jung, Eunwoo). “Koryŏ sidae ũi Kwanŭm sinang kwa tosang [Avalokiteśvara belief and iconography of Koryŏ dynasty]”, *Pulgyo misulsahak* 8 (2009): 113-127.

Chŏng, Ut'aek (Chung, Woo-thak), “Sinch'ul Koryŏ sidae Suwŏlgwanŭmdo [Newly Discovered Water-Moon Avalokiteśvara of the Koryŏ Dynasty]”, *Tonak misulsahak* 2 (2001): 103-120.

_____, “Chosŏn jŏn'gi sindosang sŏnmyo Gwanŭmbosalto [Line-drawing Painting of Avalokiteśvara Bodhisattva Dating from the Early Chosŏn Period]”, *Tongak misulsahak* 18 (2015): 7-33.

Hwang, Kŭmsun (Hwang, Keumsoon), “Koryŏ Suwŏlgwanŭmdo e poinŭn 40 Hwaŏmgŷŏng yŏngnyang [The Influence of the 40-volume Avatamsaka Sutra on Water-Moon Avalokiteśvara of the Goryeo]”, *Misulsa yŏn'gu* 17 (2003): 31-78.

I, Sŭnghŭi (Lee, Seung-hee), “Chungguk Song-dae ũi Wit'aech'ŏn shinang kwa tosang koch'al [A Study on the Belief in Guardian Weituo and Its Iconography in Song Dynasty, China]”, *Misulsa yŏn'gu* 19 (2005): 87-114.

I, Yongyun (Lee, Yong yun), “Chosŏn hugi P'yŏnyang munjung ũi pulsa wa sŭngnyŏjangan ũi hwaltong [The Temple Work of the P'yŏnyang Clan and Activities of Craftsman-Monks in Late Chosŏn]”, *Misulsa yŏn'gu* 32 (2017): 137-165.

- Im, Yöngae (Lim, Young-ae), “Sökkuram Kümgyangyöksa e kwanhan myöt kaji munje [Several Questions on the Images of Vajrapani at Sökkuram]”, *Shilla munhwa* 32 (2008): 199-224.
- _____, “Söyök pulgyomisul esöüi choikkwan kwa kwandae [Winged Crown and Diadem in Chinese Turkistan Buddhist Art]”, *Chungang Asia yön'gu* 11 (2006): 115-139.
- Kang, Huijöng (Kang, Heejung), “Koryö Suwölgwanümdosang üi yönwön e taehan chaegömt'o [A Review of iconographies of Water-moon Avalokitesvara origin in Koryö]”, *Misulsa yöngu* 8 (1994): 3-32.
- _____, “*Chungguk Kwanümbosalsang yön'gu* [A study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statues of China]”, *Ilchisa*, 2004.
- _____, “*Kwanüm gwa Mirüg üi tosanghak* [The Iconography of Avalokitesvara and Maitreya]”, *Hakyön munhwasa*, 2007.
- Kim, Jahyön (Kim, Jahyun), “*Chosön chön'gi pulgyo pyönsang p'anhwa yön'gu* [Woodcut Prints of Buddhist Scriptures of Early Chosön]”, *Ph.D.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2017.
- _____, “Ünjün Ssanggyesa üi 16-segi Tanp'ok pyönsang p'anhwa yön'gu [16th Century single-leaf Woodblock Prints from the Ssanggyesa Temple in Ünjün]”, *Misulsa yön'gu* 300 (2018): 137-166.
- Kim, Migyöng (Kim, Mi-kyung), “Chosön shidae Kwanümbosalto üi hyöngsik koch'al [A study of Avalokitesvara Buddhist paintings of Chosön Period]”, *Munhwa sahak* 14 (2000): 99-171.
- Kim, Minji (Kim, Minji), “Chosön 17-18-segi Kwanümsamjonsang yön'gu [A study on Avalokitesvara Bodhisattva Triad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Chosön Dynasty]”,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9.
- Kim, Mubong (Kim, Mu-bong), “*Pulchöngshimdaranigyöng önhae yön'gu* [A study on *Pulchöngshimdaranigyöng önhae*]”, *Han'guk sasang kwa munhwa* 45 (2008): 351-394.
- Kim, Pohyöng (Kim, Bo-Hyeong), “*Wit'aech'ön tosang yön'gu* [The Iconographical Study on Skanda]”, *M.A. thesis, Dongguk University*, 2001.
- Kim, suhyön (Kim, soo-hyun), “Chosön sidae Kwanümdosang kwa shinang yön'gu [A Study on Belief and Iconography of Avalokitesvara in the Chosön Dynasty]”, *M.A. thesis, Dongguk University*, 2005.
- _____, “Chosön chungugi Kwanüm kyöngjöng kanhaeng yön'gu [A study of Avalokitesvara Scriptures in the Chosön Dynasty]”, *Munhwa sahak* 24 (2005): 137-158.
- Kim, Yönmi (Kim, Youn-mi), “Yo-nara Choyangbuk't'ap sarigong gwa Chinönjong Yöböpchonsüngböb üi kiwön [The Relic Crypt of the Chaoyang North Pagoda from the Liao Dynasty and the Origin of the Shingon School's Nyoho Sonsho Ritual]”, *Misulsawa shigangmunhwa* 10 (2011): 166-219.
-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Parwön kanjörhan param ül tamda* [Devout patrons of Buddhist art]”,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2015.
- Mun, Myöngtae (Moon, Myung-dae), “Hüngch'önsa pulsang üi sönggyök kwa 1701-nyön Pöpcham jak mokcho Suwölgwanümbosal samjonsang mit pokchangp'um yön'gu [The Character of the Buddha Statue at Hüngch'önsa Created by Beopjam in 1701 and a Study on the Wooden Water-Moon Avalokitesvara Triad

- and Inside Contents]”, *Kangjwa misulsa* 53 (2019): 15-40.
- Song, Ŭnsök (Song, Unsok), “*Chosön hugi pulgyo chogaksa* [The Art of Buddhism sculpture in the Late Chosön Dynasty]”, Sahoep'yöngnon, 2012.
- _____, “Chosön hugi pulchön nae yangsik üi sönghaeng kwa pulsang üi chohyöngsöng [Visual Characteristics of Late Chosön Buddhist Sculptures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Popularity of Buddhist Rituals and Spatial Constraints of Places of Worship]”, *Misulshak yön'gu* 263 (2009): 71-97.
- _____, “Chosön hugi pulsökche pulsang kwa chogaksüng Süngho Kyöngok [Buddhist Sculptures Made of Zeolite and Monk-sculptors Süngho and Kyöngok in the Late Chosön Dynasty]”, *Kuk'ak yön'gu* 34 (2017): 137-191.
- Söul oksyön (Seoul Auction), “*Seated Buddha*”, Söul oksyön, 2016.
- Yun, Hyejin (Yoon, Hye-Jin), “Chosön sidae Pulchöngshimdaranigyöng p'anhwa yön'gu [A Study on Chosön Dynasty “Buljeongsim Dharanigyöng” Woodblock-painted]”, *M.A.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2.
- U, Jinung (Woo, Jin-Woong), “Han'guk milgyo kyöngjön üi p'anhwabon e kwanhan yön'gu [A Study on Chosön Dynasty “Buljeongsim Dharanigyöng” Woodblock-painted]”, *Ph.D.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0.
- _____, “Pulchöngshimdaranigyöng üi p'anbon kwa saphwa e kwanhan yön'gu [A Study about the Editions and the Illustrations of Buljungsimdharanikyung]”, *Söjihak yön'gu* 60 (2014): 347-379.

국문초록

총 8점의 조선후기 관음삼존상이 전해지고 있다. 이 상들은 17~18세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조선후기의 불교사적, 조각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하여 상의 조성배경과 의미, 조각사적 의의 등이 심도있게 밝혀지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관음삼존상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위태천과 관련된 도상에 주목하여 그 의미와 양상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관음삼존상은 기존에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용왕과 동자 협시가 나타나는 상으로 언급되어 왔는데, 본 연구를 통해 관음의 협시로 동자와 용왕뿐 아니라 위태천 도상 요소가 나타남을 밝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관음삼존상에 위태천의 도상이 혼재되어 나타남을 새로 밝히고, 그러한 원인이 조선시대 대량으로 간행되었던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에 나타나는 수월관음 판화와 〈관음보살도〉 다라니임을 제시하였다.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에는 관음, 동자, 용왕과 함께 위태천이 중요한 존격으로 함께 등장한다. 이처럼 위태천이 비중있게 등장하는 새로운 수월관음의 이미지가 널리 유통되면서, 조각으로 만들어진 조선후기 관음삼존상에는 용왕과 동자 협시에 위태천의 도상이 혼재되어 나타나게 된다. 세 개 이상의 상을 제작할 수 없는 삼존이라는 조각의 한계로 인해, 한 개의 상에 두 가지 도상을 표현한 혼합형 협시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조선후기 관음삼존상은 기존의 『법화경』 「보문품」, 『화엄경』 「입법계품」에 기반한 고려의 수월관음도와는 계통이 다른, 조선시대 유행한 『불정심다라니경』과 같은 다라니류, 진언과 관련된 밀교적 불교 신앙을 반영한 새로운 수월관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위태천이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수월관음의 이미지가 판화, 회화, 조각이라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용, 확산되었던 전체적 양상은 조선시대에 서로 다른 매체에서 도상이 공유되며 상호 영향을 미쳤던 과정을 잘 보여준다. 다라니와 관련된 판화로 인해 조선시대 유행하게 된 새로운 수월관음 도상의 구성과, 이를 조각으로 옮겨 표현하기 위해 발생한 관음삼존상의 새로운 혼합형 도상은 그 당시 사람들의 염원이 조각상에 끼친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무장형 표현을 한 호법신중의 도상적 요소가 관음삼존상에 함께 혼재되어 조각된 것은 강하게 자신을 지켜줄 존재를 갈구해야 했던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어 보이며, 넓게는 소중한 것을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고픈 그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의 투영으로 생각된다.

Skanda-Karttikeya in Avalokitesvara Triad in Late Joseon

Kim Minji*

The eight examples of Avalokitesvara Triad that survive from late Joseon are products of their time, representing the currents of the Buddhism and of the Buddhist sculptures in Joseon of the 17th and 18th centuries. However, as they have received little scholarly attention,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y were made, and their significance and standing in the history of Buddhist sculpture in Korea have not been understood in depth. This study focuses on the mixed representation of Skanda-Karttikeya in Avalokitesvara Triad and analyzes the meaning and patterns of its appearance. Traditionally, the Avalokitesvara Triad were understood to be of the Bodhisattva Avalokitesvara attended by the Dragon King and Sudhana, but the iconography of Skanda-Karttikeya can be recognized in some examples. The reasons for the inclusion of this iconography can be found on the prints of Water-Moon Avalokitesvara and Avalokitesvara Dharani included in the narrative paintings for the *Buljeongsimdharani-gyeong*, a scripture mass-produced in Joseon, where Skanda-Karttikeya appears as an important deity along with Avalokitesvara, Sudhana, and the Dragon King. As this new iconography of Water-Moon Avalokitesvara was widely distributed, the late Joseon sculptures of the Avalokitesvara Triad began to absorb Skanda-Karttikeya among them. As only two attendants could be present in a triad, different iconographies were merged into one. Whereas the Water-Moon Avalokitesvara of Goryeo was based on the “The Universal Gateway of the Bodhisattva Perceiver of the World’s Sounds” chapter of the *Lotus Sutra*, and the “Entering the Dharma Realm” chapter of the *Avatamsaka Sutra*, the Avalokitesvara Triad of late Joseon was a new type of Water-Moon Avalokitesvara, representing esoteric Buddhism and Dharani. The

* Ewha Womans University

reception and diffusion of the new iconography that includes Skanda-Karttikeya images via prints, paintings, and sculptures demonstrate how iconographies were shared between different materials and influenced each other. The late Joseon Water-Moon Avalokitesvara that became popular through prints related to the practice of Dharani, and the new mixed iconography of Avalokitesvara Triad made to express it in sculpture show how the desires of the contemporary people were reflected in religious sculptures. Images of Dharmapala as warrior-types were incorporated as people needed protection from danger, and they also stand as witness to the earnest desires of the people who wanted to guard something precious from harm.